



◀ '사랑에 미치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에 윤전일 특유의 슬픈 감정을 녹인 '감성 무용극'으로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 109%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초연 이후 연이은 관객들의 재연 요청에 광주에서 '사랑에 미치다'의 여운을 이어간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 윤전일 안무작 '사랑에 미치다'

국립발레단, 루마니아 국립오페라발레단 주역무용수 출신 발레리노 윤전일이 지난해 '제8회 대한민국발레축제'에서 선보인 안무가 데뷔작 '사랑에 미치다'를 오는 20일과 21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재연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8년 4월 윤전일이 창단한 '윤전일 Dance Emotion'의 첫 단독 공연이다.

'사랑에 미치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에 윤전일 특유의 슬픈 감정을 녹인 '감성 무용극'으로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 109%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ACC 20~21일, 2회 공연  
김지영·장혜림 등 총출동

화제가 된 바 있다. 초연 이후 연이은 관객들의 재연 요청에 광주에서 '사랑에 미치다'의 여운을 이어간다. 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이자 경희대학교 무용과 교수인 김지영, 광주시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송관석, 전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이현준, 전문 무용수지원센터 주관 '2018년을 빛낸 무용수상'을 수상한 한국무용수 장혜림, Mnet 댄싱 9, 썸바디 등에 출연해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는 현대무용수 한선전 등 최고의 무용수들이 한 무대에 선다.

'사랑에 미치다'는 죽음을 앞둔 여자와 이를 모른 채 사랑에 열중하는 남자의 슬픈 사랑 이야기이다.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비보잉 댄서들이 가슴 깊은 곳의 감정들을 누구보다도 애절하게 표현해냄과 동시에 여러 무용 장르를 넘나들며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낸다.

이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21일 오후 5시에 총2회 열린다.

/오복 기자 boh@

## “광주 국악愛에 빠지다”



광주한글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관람을 시작으로 벌써 4번째, 80여명의 학생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사진은 지난 7일 광주시립창극단 공연에 26여명 학생들이 관람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 광주한글학교 외국학생들 한국문화체험수업 창작국악단 도드리·아시아음악교류협회 출연

광주에 오면 꼭 봐야할 공연,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광주국악상설공연'이 점차 관객층을 넓히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수영대회 기간 동안 외국선수단 및 방문객, 중국예술학회의 관람에 이어 현재에도 꾸준히 외국인들의 관람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광주국악에 매료돼 매주 공연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있다. 바로 광주한글학교 학생들이다. 지난달 29일 관람을 시작으로 벌써 4번째, 80여명의 학생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매주 토요일 오후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격이다 생각했던 것이다.

2015년 개설된 광주한글학교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수와 한국문화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자기체험, 한과체험, 붓글씨

쓰기 등 다양한 한국문화수업을 진행하던 중에 국악상설공연을 만난 것이다.

지난 지난 7일에도 광주시립창극단 공연에 26여명 학생들이 관람했다.

영국, 체코, 에디오피아,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은 우리 소리와 장단에 취하고, 사자춤과 강강술래를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둘째 주에도 풍성한 무대를 마련하여 관객을 맞이한다.

창작국악, 전통무용, 판소리, 사물놀이, 국악관현악, 가야금 연주, 국악가요 등 다양한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

오는 10일은 은 창작국악단 도드리가 공연한다. 포크락 밴드 프로그의 '담쟁이', '다시 합시다'를 시작으로 국악 관현악 '섬진강', '도드리 아리랑', 국악가요 '작은 어부', '바위섬', '남도길', '천년사

랑', '아리랑 광주', 전통무용 '화선무(花扇舞)' 등을 선보인다. 오는 11일은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한가위 맞이 공연을 펼친다. '국악 새로이 날다'란 주제로 모두가 쉽게 따라 부르고 어깨춤도 함께 출 수 있는 흥겨운 시간을 마련한다.

추석 연휴인 14일은 창작국악단 '도드리'가 공연한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악가요 '아리랑 광주', 'Contemporary 아리랑'에 태권무를 접목한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국악관현악 '죽향풍월', 국악가요 '가을산책', '상모', '내 사랑 섬진강', '심청별곡', 25현 가야금 연주 '황금산의 백도라지', 'Let it be', 'Ob La Di Ob La Da' 등을 공연한다. 공연은 오후 5시, 치평동 광주공연마루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이고, 지정좌석제로 운영한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 또는 전화(062-613-8379)를 통해 좌석을 사전예약하면 된다. /오복 기자 boh@

### 광주 최초 영화비평지 '씬1980' 창간준비호 발행

광주 최초 영화비평지 '씬1980'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발행/격월간)이 지난 5일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발행되었다. 그동안 광주영화신문은 2018년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광주 출신으로 정봉영영화제 단편상을 수상한 허지은·이경호 감독 등을 배출하며 전국 영화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또, 2016년 광주국제영화제 파행 사태 이후 더욱 적극해진 광주영화신문을

활성화시키고자 출범한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를 중심으로 의기투합한 광주영화인들의 성과는 상당했다. 연출과 촬영 등 제작시스템의 자생적 구축, 전국에서 유일하게 1년 내내 한국독립영화관을 상영하는 광주독립영화관의 성공적 안착,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여성영화제, 청소년 영화제작워크숍 및 영화비평가 양성과정 등의 시민 대상 영화교육의 성공 등 영화와 관련한



모든 사업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광주영화신문의 축적되어가는 성과들을 비평의 언어로 정리하고 광주뿐아

니라 전국에 광주영화신문을 알릴 수 있는 비평지 '씬1980'을 창간했다.

이번 '씬1980'은 창간준비호로 비평지를 발간하기까지 광주 영화인들의 고민과 활동사항이 주로 담겨 있다.

/이훈 기자 rkals@

재활용으로 지구를 살려요



# 자원순환

